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3 Seoul National University Commencement

Congratulatory Speech

Chen Ning Yang

Professor at Tsinghua University and Winner of Nobel Prize in Physics in 1957

Graduating Student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 am sorry that my back trouble prevents me from coming to Seoul to speak to you in person today.

Seventy years ago, in the year 1942, I myself graduated from the Southwest Associated University in Western China. It was during the long and bitter War against Japanese invasion that I went to that university. Material conditions at the university were very primitive – we slept in mud-floored, thatch-roofed dormitories and our mess halls had no chairs so we had to stand and eat.

But our spirits were high, and we worked very hard. Ours was not an austere life, for we did not have more material desires. Ours was also not a frustrated life, for we had a lot of intellectual stimulation and satisfaction. Ours was just a very simple life which shaped our personal characters and formed our tastes in physics research that were to have profound effects on our later careers.

Reflecting on those days, I realize I am extraordinarily fortunate to enter a career after graduation at a time when new scientific fields were developing. I was able to seize the opportunities opened in front of me and made some progress in physics research.

In 1966 I moved to a new University at Stony Brook on Long Island near New York City. It was a new campus, and my colleagues and I combined our efforts to make it into a new research university. I was very fortunate in successfully recruiting a brilliant young Korean-American physicist, Benjamin Lee, to join me at our new campus. In the next few years, Benjamin Lee did world class research work in high energy physics, the most important field of physics at the time, and became a young star in this new field. He would have achieved a greater success if he were not unfortunately killed in an automobile accident in 1977.

Graduating students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mpared to me, you are infinitely more fortunate today in graduating from this modern, very beautiful with distinguished scholastic traditions. You also will be entering your new careers at a dynamic time in this vibrant and prosperous country, the Republic of Korea. I am sure each of you will seize the great opportunities opening in front of you and sculpture your respective careers to your satisfaction and also to your countrymen's satisfaction.

Thank you.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3 Seoul National University Commencement

졸업식 축사

청화대학교 양 전 닝 교수
1957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서울대학교 졸업생 여러분,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오늘 여러분 앞에서 축사를 드리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70년 전, 1942년에, 저는 중국 서부의 서남연합대학에서 학사를 받았습니다. 이 시기 중국은 일본의 침략에 맞선 길고 힘든 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대학은 물질적으로 매우 낙후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진흙 바닥으로 된 초가집에서 자고 학생식당의 의자가 없어서 서서 식사를 하면서 공부를 했었지요.

하지만 우리는 열정에 넘쳤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 시절 우리들의 삶을 표현하자면, 더 많은 물질적인 것들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욕적인 것도, 충분한 지적 자극과 만족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절망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시절 우리들의 삶은 우리 각각 개인의 인성과 과학적 연구에 대한 개인적 성향을 착실히 만들어갈 수 있었던 매우 단순한 삶이었고, 이 시절 얻은 모든 것들은 저와 제 동기생들이 나중에 쌓은 커리어에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의 긴 인생을 뒤돌아보면 저는 제가 정말 운이 좋았다고 느낍니다. 학부 졸업 후 저는 새로운 과학 분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할 시점에 연구자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이 새로운 분야에서 너무나도 좋은 기회들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성공적이고 보람 있는 커리어를 쌓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996년에 저는 뉴욕시 근처 롱아일랜드에 스톤브룩이라는 새로 생긴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의 새 캠퍼스에서 저와 제 동료들은 새로운 연구대학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이때도 매우 운이 좋게, 아주 총명한 젊은 미국계 한국인 물리학자 벤자민 리를 만나 제가 차린 연구소에 합류하도록 할 수 있었죠. 벤자민 리는

그 시기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했던 분야인 고에너지물리학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1977년에 교통사고로 우리들의 곁을 떠나게 되지 않았다면 제가 아꼈던 이 학자가 더욱 더 큰 업적을 남겼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졸업생 여러분,

저에 비하면, 여러분은 더욱 더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매우 현대적이고 아름다울 뿐 아니라 저명한 학구적 전통을 가진 대학을 오늘 졸업합니다. 여러분은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활기차고 번영하는 국가의 역동적인 시기에 여러분의 새로운 길을 향해 나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열릴 굉장한 기회들을 붙잡아 자신과 한국 국민들에게 큰 만족을 줄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